

허균이 꿈꾼 이상향의 섬...하얀 상사화 손짓하네

부안 위도 '고슴도치섬 달빛 보고 밤새 걷기' 9월 1~2일

전북

전북 부안은 '생거(生居) 부안'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영조시대 암행어사 박문수가 "염시초(물고기·소금·뿔나무)가 풍부해 부모를 봉양하기 좋으니 '생거 부안'이라다"라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부안에서 가장 큰 섬이 위도다. 고슴도치를 닮아 '고슴도치 위(蠃)지'를 쓰는 위도는 고운 모래와 울창한 숲, 기암괴석과 빼어난 해안 풍경, 수산 자원이 풍부해 허균이 꿈꿨던 이상향 울도국의 모델로 '홍길동전'에서 등장한다.

고슴도치가 편안히 누운 모양의 위도에는 현재 1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위도의 관문은 파장금(波長金·물결이 길면 어선이 모이는 곳)인데, 고슴도치 주둥이에 해당해 위도를 찾는 여행자들은 배에서 내려 곧장 고슴도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다. 심청전에서 효녀 심청이 눈이 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몸을 던진 인당수가 위도의 부속도서인 입수도 해역이라는 설도 있다.



◀세계 유일 하얀 상사화.

고운 모래·기암괴석·울창한 숲...이국적 풍경
형제섬 전설·대룡섬 전설 등 스토리도 가득
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위도 띠벧놀이'
망월산 위 보름달 '망봉제월' 등 8경 '백미'

◇띠벧놀이 등 이야기 풍성

위도 여행은 육지와는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 섬은 이국적인 풍경이 눈길을 끈다.

위도는 격포항에서 13km가량 떨어져 배로 50분이면 도착한다.

위도 해안가 절벽은 섬의 장관을 병풍 삼아 고기를 낚는 바다 낚시터로 유명하다.

서해는 낙조가 유명한데 그중 위도 낙조는 손에 꼽는다. 고운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는 위도해수욕장. 특히 해지는 저녁 바다 멀리 왕등도를 배경으로 그려지는 노을은 장관을 이룬다.

위도는 염전으로 정금다리를 놓으려 했다는 안동 장씨 이야기와 형제섬 전설, 피동지 전설, 칠산바다 전설, 대룡섬 전설 등 수많은 스토리가 가득하다.

1978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위도 띠벧놀이'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다.

위도 띠벧놀이는 170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이 임금님 진상품인 칠산조기가 많이 잡히는 대리마 앞 칠산바다에 산다는 용왕에게 만선과 행복을 적은 띠지와 오색기, 어부를 상징하는 허수아비 7개, 어선 모양의 띠배를 갈대와 뱃짓으로 제작해 바다에 띄우게 되는 풍어제로 중요무형문화재 82-3호로 지정됐다.

이 칠산조기는 인근 전남 영광으로 옮겨져 가공·판매돼 전남 영광굴비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는 어획량이 줄어 과거의 파시(波市) 흔적만 남아 세월의 무상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위도 8경' 빼어난 풍광 자랑

위도 여행의 백미는 바로 '위도 8경'이다.

위도 8경은 내원모종(內院菴鐘)·정금취연(井金炊煙)·식도어가(食島漁歌)·망봉제월(望峰霽月)·봉산출운(鳳山出雲)·신소귀범(船所歸帆)·왕등낙조(旺燈落照)·용연장조(龍淵漲潮) 등이다.

일경인 '내원모종'은 위도면 치도리에 있는

내암에서 아침과 저녁에 은은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로 '평화와 정서를 안겨주는 아름다운 소리'란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경인 '정금취연'은 진리 앞 정금도의 초가집에서 저녁밥을 지을 무렵 부연 연기가 연한 바람에 날리며 동네 곳곳을 갈고 있는 광경으로 일품이다.

진리 앞 2km 떨어져 있는 식도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 팔고 있는 광경인 '식도어가'가 삼경이며, 위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망월산(해발 245m)에서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는 모습인 '망봉제월'이 사경이다.

오경은 '봉산출운'으로 새머리 모양을 한 봉수산(해발 180m) 허리를 흰 구름이 감고 있는 모양이며 위도 앞 칠산바다에서 돛단배가 위도를 향해 만선을 의미하는 오색찬란한 깃발을 휘날리며 돌아오는 모습인 '신소귀범'이 육경에 속한다.

위도에서 20km가량 떨어진 왕등도의 '왕등낙조'는 칠경으로 서해의 일경으로 널리 알려진 만류 탄성을 자아낸다.

마지막 팔경은 진리 앞바다에 만조 광경을 말하는 것으로 만조가 되면 호수 가운데 몇 개의 바위와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 듯한 절경을 이룬다 해서 '용연장조'라 부른다.

아울러 '위도 여행의 일 번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곳이 바로 위도해수욕장이다.

위도해수욕장은 마치 소쿠리 안처럼 되어 있고, 1km 규모의 고운 모래사장과 얇은 수심에 백옥같이 맑은 바닷물을 간직하고 있어 한 번 찾으면 또다시 찾게 되는 매력적인 해수욕장이다.

모래사장에 앉아 있으면 왕등도의 원경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낙조는 그야말로 황홀경을 자아낸다.

◇세계 유일 하얀 상사화 자생지

상사화(相思花)는 꽃과 잎이 서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지어진 애절한 이름이다. 그중 위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하얀 상사화 자생지이다. 그래서 '위도상사화'라는 이름을 따로 가졌다.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인 위도상사화를 주민들은 '뽕부리대'라고 부른다.

부안군은 위

도에서 오는 9월 1~2일 달빛을 맞으며 세계 유일의 흰색 상사화꽃인 위도상사화가 만발한 자연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밤새 걸을 수 있는 '고슴도치섬 달빛 보고 밤새 걷기 축제'를 연다.

위도는 낚시꾼들의 천국이기도 하다. 농어·광어·감성돔·우럭·삼치·민어·장대 등이 많아 짜릿한 손맛을 잊지 못하는 갯바위와 선상 낚시꾼들로 사시사철 붐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넘쳐난 위도는 한마디로 바다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섬이다.

◇교통편·숙박

위도로 가는 배편은 격포항여객터미널을 이용하면 된다. 위도카페리호와 파장금고속페리호가 주말에는 8차례, 8월에는 12차례까지 왕복 운항한다. 출항시간은 조석간만의 차로 유동적이다. 소요시간은 50분. 뱃삿도 비수기와 성수기 때가 다른데 성수기에는 편도 9100원이다. 차량 운반비는 중형승용차 기준 1만 8000원이다.

위도에는 펜션과 민박 등 숙박업소가 120여 개에 달한다. 백발의 노부부가 직접 내린 아이스 드립커피를 만끽할 수 있는 쉼백(063-584-7000)과 위도빌리지(063-581-7790), 위도여행스캐치(063-583-4055)를 추천한다.

자세한 정보는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전북일보 백세종 기자



▲위도 띠벧놀이.



▲위도 해수욕장

光州日報 江原日報 江原일보 江原신문 大田日報 忠北日報 忠北신문 전북일보

新韓道游覽은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H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